

# 나주 혁신도시 상가 10곳 중 4곳 비어있다

나주시, 6967곳 전수조사

‘조성 10년 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가 인구 4만 명을 눈앞에 뒀지만 주말 공동화와 특정 업종 몰림 현상이 심화하면서 상가 공실률이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나주시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 실태조사 용역’ 자료에 따르면 나주 빛가람동(혁신도시) 집합 건물·일반건물의 공실률은 43.4%로 집계됐다.

나주시는 전문 용역을 통해 빛가람동에 있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6967곳을 지난 7~8월 현장 방문 조사하며 공실 실태를 조사·분석했다.

공공기관과 오피스텔 등을 제외하고 빛가람동에는 집합건물 6494곳(93.2%)과 일반건물 473곳(6.8%) 등 6967곳의 상업·업무시설이 있다.

이들 시설 가운데 운영 중인 건물은 56.6%에 해당하는 3942곳으로, 나머지 43.4%(3025곳)는 공실 상태였다.

나주시는 혁신도시를 중심상업지역, 건축물 유

## 3025곳 ‘공실’...4곳 중 1곳 음식점 ‘특정 업종’ 몰림 심화 주말 상권 활성화·업종 다양화·권역별 특성화 등 대책 필요

형에 따른 아파트 상가, 일반상가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조사했다.

4602실로 가장 많은 상가가 있는 중심상업지역 상가 공실률은 43.9%로 나타났다며 아파트 상가보다 일반 상가 공실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층수별 공실률은 1층 40.2%, 2층 이상 45.9%로 나타났다. 3층 상가 공실률은 50.2%로 가장 높았다.

나주시가 혁신도시 운영 상가 3942곳을 분석해 보니 가장 많은 업종은 음식점(26.3%·1037곳)이었다. 기업 사무실·금융업·공기관 등 기타가 25.8%(1017곳)로 뒤를 이었고, 3위는 소매업(11.0%·434곳)이었다. 사업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1.4%·56곳)과 보건의료업(1.4%·57곳), 숙박업(2.3%·89곳) 등은 빈약했다.

혁신도시 상권은 대부분 업종이 평일 매출이 높

았고 주말, 특히 일요일 매출은 낮은 편이었다.

종합소매업 월평균 매출액은 8895만원으로, 혁신도시 상권 업종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 가운데 편의점은 주중, 슈퍼마켓은 주말 매출이 높았다.

종합소매업에 이어 한식 음식점업(2138만원), 주점업(1377만원), 간이 음식점업(1286만원), 음료점업(1186만원), 스포츠 서비스업(807만원), 기타 교육기관(632만원), 이·미용업(376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나주 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은 16개 공공기관·공기업이 이전했지만, 인구는 계획인구(4만9499명)의 80%인 3만9000명대(올해 상반기 기준)에 머무르고 있다.

정주여건 만족도는 68점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평균 만족도(69점)에 못 미치고, 부산(75점),

울산(72.2점), 경남(71점) 등을 밀돌았다.

정주여건 개선이 더더 이전 인구(7698명)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71.7%에 그쳤다.

나주 혁신도시의 집합상가 임대료는 m<sup>2</sup>당 1만 1200원으로, 전국 평균(2만6700원)의 절반에 못 미치고, 혁신도시 평균(1만7000원)도 밀돌았다.

나주시는 30~40대, 10대 미만 인구 분포가 높은 도시 특성을 반영해 아동 돌봄·교육, 문화·예술 등 업종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주말 상권 활성화와 권역별 상권 특화, 상가 과잉공급 대안 마련을 상권 활성화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그간 추정치에 의존했던 공실률 파악을 위한 이번 전수조사는 상가 건축물, 과세자료에 기반을 둔 현장 조사의 결과물로 신뢰도가 높다”며 “권역별, 층별 상가 공실 및 운영 세부 자료를 확보해 원인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공실 해소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 화순 석천사 힐링음악회

오늘 가수 이은미·오정해 등

가을을 맞는 힐링 음악회가 27일 오후 6시 화순군 도곡면 중봉산 중턱에 자리한 석천사에서 열린다.

음악회는 석천사가 지역민과 더불어 상상하는 마음을 담아 매년 봄·가을에 개최하고 있다.

이번 음악회에는 가수 이은미, 박창근, 해바라기, 신호범 등이 출연한다.

영화 서편제의 국악인 오정해의 남도 소리와 김도연의 한국무용도 선보인다.

석천사 해문 주지 스님은 “많은 불자와 시도 민들이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다스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함평에서 나비 날려요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11월5일까지)이 열리는 함평 엑스포공원 자연생태관에서 관람객들이 나비를 날리고 있다. 나비 날리기 체험은 축제 기간 매일 오후 1시(평일 30명·주말 50명 선착순) 참여할 수 있다. <함평군 제공>

## 담양군 공공비축미 4090t 매입...19% 감소

40kg당 3만원 우선 지급...12월 최종 정산금 지급키로

담양군은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량이 4090t으로, 지난해(5078t)보다 19%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은 새정무와 신동진이다. 담양군인 이달 6일부터 공공비축미 산물벼를 사들이고 있다. 포대벼는 다음 달 14일부터 읍·면별 차례대로 사들인다.

담양군은 우선 지급금으로 40kg당 3만원을 지급하고,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반영해 12월 중으로 최종 정산금을 줄 계획이다.

담양군은 올해 장마와 무더위 영향으로 벼 수확량이 전년보다 15~20%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지난 25일 지역 통합미곡종합처리장(RPC) 3곳을 찾아 산물벼 매입 상황을 점검했다. 이 군수는 “농민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산지 쌀값이 제값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공공비축미 매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

## 강진군, 논콩 재배 행정력 집중

지원금 효과에 재배면적 300% 증가...내년 300ha로 늘리기로

강진군이 벼 적정 생산과 재배 면적 감축 및 논소득 다양화를 위해 대체작목으로 논콩 재배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43ha에서 올해 176ha로 전년 대비 300% 증가할 정도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재배면적 급증은 필지별 상황에 따라 최고 4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논콩 재배 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ha당 150만~250만원, 전락작물 직불제 ha당 100만~25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강진군은 내년에 논콩 재배 면적을 300ha로 확대할 계획이다.

논콩 재배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지로 선정된 강진군 읍면면 착한영농조합법인도 18억원을 들여 공 종합처리

장과 선별라인을 구축한다.

특히 콩 전용 파종기, 제초기, 방제비 및 유기질비료, 논콩 재해보험료 등 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논콩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산과 유통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김성 장흥군수, 내년 현안사업 국비 확보 '총력'

국회·기재부 찾아 '국민안전체험관' 등 예산 건의

장흥군은 김성 군수가 최근 2박 3일 일정으로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찾아 '전남 국민안전체험관'과 '대한장애인체육회 남부 해양선수촌' 건립 등 내년 현안사업 예산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장흥군의 내년 현안사업은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대한장애인체육회 남부 해양선수촌 유지, 천관산 등산학교,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 등이 있다.

김 군수는 지난 23일 국회를 찾아 서삼석 예결위 원장, 강훈식 예결위 간사를 만나 사업비와 용역비 예산을 요청했다.

24일에는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조용범

사회예산심의관, 황순관 경제예산심의관을 만나 2024년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25일 국회를 방문해 권성동 의원과 면담하고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유지 지원을 요청했다.

장흥군은 사업비 570억원 규모 국민안전체험관에 대한 건립계획을 세우고, 부지 매입, 투자 심사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밖에도 대한장애인체육회 남부 해양선수촌 건립은 장흥 관산을 삼산리 일원에 장애인 해양스포츠 훈련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되며 조정, 카누, 트라

이에슬론, 워터 마라톤 등 종합 해상 훈련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천관산 등산학교는 등산·도보 여행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다.

장흥군은 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스포츠 클럽 이밍, 강의실, 생활관 등을 만들 방침이다.

호남권역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는 산림에서 유래하는 천연물질과 바이오 산업체, 임가의 소득 연계를 지원한다. 2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김성 군수는 “국회, 중앙부처와 소통을 강화해 지역에 필요한 현안사업 유치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국비사업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